



시대에 영합한 변신의 귀재, 영화감독 최인규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1937년 7월 일본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한 이래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 8월 일제 패망에 이르는 시기를 우리는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른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은 일본과 하나이며(內鮮一體), 천황폐하의 충량한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皇國臣民) 대대적인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중국, 미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벌이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해 조선인들이 가진 모든 물자와 목숨마저 전쟁에 동원하고자 광분했다.

하지만 오래 동안 일제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저항하던 조선 민중들이 이러한 일제의 요구에 순순히 따를 리 없었다. 일제는 조선인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데올로기 공작을 필요하며, 이왕이면 일본인보다는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일제는 조선인 출신의 지식인, 문화예술인들을 내세워 내선일체, 황국신민, 성전(聖戰) 완수의 나팔수로 조직하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한 때 존경하던 수많은 조선인 지식층, 문화예술층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펼쳐진 조선인의 친일예술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전쟁과 죽음을 찬양하는, 예술의 죽음 위에서 잉태되고 발전한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인 것은 친일 영화였으며,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이 바로 최인규였다.



▲ <집 없는 천사>

최인규는 1911년 평안북도 영변면 동부동에서 출생했다. 어릴 적부터 작문 솜씨가 뛰어났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평양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아마추어 극단을 만들어 동네창고에서 공연하기도 했던 만능의 소년 예술가였다. 그는 1939년 액션물이라 할 <국경>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했고, 두 번째 영화 <수업료>(1940)를 통해 일약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곧 그는 1941년작 <집 없는 천사>를 감독하면서 친일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집 없는 천사>는 향린원(香隣園)에서 부랑아들을 기르던 사람의 실화를 소재로 만든 것이다. 이 영화는 한때 부랑아가 난무하는 조선의 현실을 통해 피폐한 민족의 현실을 고발한 영화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그 필름이 발굴되면서 오히려 친일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뒤집어졌다. 향린원 원장이 자신의 친아들을 부랑아들에게 소개하면서 “장래의 지원병이지”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거나, 아이들이 일



▲ 친일영화인들에 의해 제작된 광복영화 <자유만세>

장기 아래서 나팔소리에 맞추어 행진을 하고 밥을 먹고 취침을 하는 병영같은 향린원의 일상, 일장기 아래서 일어 '황국신민의 서사'를 모두 같이 합창하는 마지막 장면 따위에서 드러나듯, 이 영화는 조선의 부랑아들을 교육하는 '선의'가 충실한 황국의 신민 또는 지원병 육성과 암암리에 연결되어 있었다.

최인규는 이후 일본인이 지휘한 <망루의 결사대(望樓の決死隊)>(1943)라는 영화에서 기획·감독보·편집을 맡았다. 일본인 지휘자의 통솔 아래 조선인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조선과 만주가 인접한 국경 마을에 마적(실상은 항일무장세력)이 쳐들어오자 이를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일본인의 지도 아래 조선인이 순응하고, 이들이 단결하여 마적(실상은 항일무장세력)을 물리친다는, 전형적인 일본의 통치 정책과 국경 경비대책이 반영된 작품이었다.

이후 최인규는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내선일체 교육을 시켜 자원입대를 하게 한다는 내용의 <태양의 아이들>(1944),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유혹하는 <가미가제(神風)의 아이들>(1945), 조선청년이 가미가제 특공대에 지원하는 내용의 <사랑과 맹세>(1945)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최인규의 작품은 아이들에게 감화력이 높은 영화라는 수단을 통해 조선의 아이들을 일제의 파시즘의 전사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해방 후 그의 변신은 친일보다 더 놀라웠다. 해방이 되자 많은 영화인들이 '광복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최인규가 감독한 작품인 <자유만세>(1946)였다. 시나리오와 주연은 친일영화인이자 연극인인 전창근이, 촬영과 조명, 그리고 편집 등도 과거 친일 영화를 만드는 데 자신의 기술을 쏟아 부었던 한형모, 김성춘, 양주남이 담당했다. 광복을 기념하는 첫 영화가 대부분 친일영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이들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이후 최인규는 6·25전란 때 납북되어 도중에 사망했다고 한다. 비록 그의 최후가 불행했다고 하지만 그가 민족과 역사에 끼친 악영향과 불행은 더욱 컸다고 하겠다. 조선총독부 도서관 영화검열실에 근무했던 김성균의 다음과 같은 말처럼, 영화가 독으로 사용될 때 그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이다.

총으로 백 번 위협하는 것보다 영화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은 체언(贅言)을 요(要)치 않아도 잘 이해될 줄 안다. ◆